

의학사 문헌의 분류에 관한 연구: 의학사 연구범주를 중심으로

The classification of literature on the medical history: Research scope of medical history

정경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Jung Kyung-hee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 Ang University)

의학사 연구영역의 확대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문헌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표에서 의학사는 매우 간단하게 취급되고 있어 이들 문헌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DC, DDC, 중국도서관도서분류법 등 일반 도서관용 분류표와 NLMC, 보스톤의학도서관분류표, 커닝햄분류표, 버나드분류표 등 의학도서관용 분류표에서 의학사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 지 살펴보았으며, 의학사문헌의 보다 정확한 분류 및 분류표 재전개를 위하여 의학사의 연구범주를 고찰하였다.

I. 서론

의학사(醫學史) 또는 의사학(醫史學)이라고도 불리우는 학문분야는 '醫'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의학의 연구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연구분야에서든 그것이 독립된 하나의 학문분야로 발전해 감에 있어 그 학문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의학 역사에 대한 관심도 의학의 태동과 더불어 존재했겠지만 전문적인 의학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 독일에서이며 나머지 서유럽 국가나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의사학회'(大韓醫史學會)가 발족한 1946년

이래로 의학사가 의학의 독립적인 한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물들은 금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Wellcome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Medicine'에서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집인 'Current Works in the History of Medicine'에 색인되고 있는 것만도 매년 6000여건 이상이 된다.(1994년 현재) 또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US NLM)의 MEDLARS 데이터베이스 중의 하나인 HISTLINE(HISTORY of medicine onLINE)에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 전세계의 의학사 관련 단행본, 학술잡지, 회의자료 등에 대한 서지데이터 155,000여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매해 6000여건의 새로운 데이터가 주단위

(weekly)로 갱신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연구영역도 점차 다양해졌는데, 즉 초창기 서지학적이고 통사적이며 인물·사상사적인 연구에서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새로운 사회사적 접근방법으로 의학 역사를 다루거나, 여성사, 인류학, 지리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경향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류표에서는 의학사 항목이 매우 간단하게 취급되고 있어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범주를 모두 아우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분류에 있어서도 의학사 아래 분류되어야 할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의학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범주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의학사문헌의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한 지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에 앞서 각 문헌분류표에서 의학사 항목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다.

II. 분류표상에서 의학사의 취급 및 문제점

의학도서관 및 일반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로서 KDC, DDC, 중국도서관도서분류법과 이러한 일반적인 분류표 이외에 의학관계자료만을 전문적으로 조직하도록 고안된 분류표인 NLMC, 보스톤의학도서관분류표(Boston Medical Library Classification : BMLC), 커닝햄분류표(Classification for Medical Literature), 버나드분류표(A Classification for Medical and Veterinary Libraries)에서 의학사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KDC에서는 3판에 이어 4판에서도 510 의학 아래 세목으로 510.9 의학사(History of medicine)와 510.98에 의학지리학(Medical

geography)을 설정하고 910-979와 같이 지리 구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DDC에서도(20판) 610 Medical Sciences, Medicine 아래 610.9 Historical,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를 세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매뉴얼에서 각 분과 의학의 역사는 그 아래 분류하라고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중국도서관도서분류법에서도 R 의학·위생 하에 R 09 의학사를 두고 세계지리구분표에 의거하여 분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세 분류표에서 의학사는 매우 간략하게 취급되고 있어 다양한 의학사문헌의 분류에 적절한 항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일반분류표보다 의학문헌용 분류표에서는 의학사가 좀더 세부적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먼저 국제적으로 의학도서관 계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LMC는 Q 기초의학과 W 의학 관련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의학사를 위한 항목으로 WZ History of Medicine이 있다. WZ는 다시 일반, 시기 및 지역별 역사, 전기, 필사본, 초기 인쇄본, 미국의학사, 초기 저작에 대한 현대 판본과 비평, 의학과 관련된 삼록 등으로 세분된다. 그리고註에는 특수한 주제를 가진 역사는 그 주제 아래 구분하라는 설명이 있다. 이러한 지적 사항과 또 세분된 것 중 많은 부분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의 분류를 위해 마련되어 있음을 볼 때 의학의 한 연구분야로서의 의학사를 위한 항목이라기 보다 의학사료의 분류를 위한 항목이라고 여겨진다.

보스톤의학도서관분류표(3판, 1955)는 상위구분 제1항목에 General Reference와 History of Medicine을 공통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하위구분 1F인 History of medicine은 다시 Fa 원시시대에서 Fg 현대까지의 시대별 구분과 Fh 병원 및 기관·단체사, Fi 삽화 및 그림, Fj 지역별 의학사 Fm 의학상(History of medals and seals) 등 시대 및 지역별 역사와 사료를 위한

항목 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버나드분류표(2판, 1955)와 커닝햄분류표(4판, 1955)에서는 상위구분 History of Medicine 아래 시대별-지역별 의학사와 더불어 의학 각 분과 및 질병사를 위한 항목이 제시되어 있고, 특히 커닝햄 분류표에는 의학사 방법론과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항목이 각각 마련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의학교육사, 단체사, 병원사, 및 수의학사를 위한 별도의 세부항목도 제시되어 있어 다른 분류표에 비해 의학사의 범주를 좀 더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분류표에서 의학사 항목은 대부분 시대·지역별 의학사와 사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병원 및 기관, 단체사 만으로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의학사의 연구문헌을 다루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의학사 항목의 재전개를 위한 우선작업의 일환으로 의학사의 연구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의학사의 연구범주

1. 일반적 역사 접근

앞서 언급했듯이 의학사 연구가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 독일에서이며 당시에는 위대한 의사나, 그들의 위대한 사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위대한 의사에 대한 전기 혹은 자서전적 전통이 최근 들어서는 역사적인 분석을 가한 인물사로 대체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의료인의 전기, 회상록, 자서전 등은 의학사의 자료를 풍부하게 해 주는 것들이다.

사상사에 있어서는 질병과 신체의 기능, 치료 등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중시한다. 예컨대 Owsei Temkin은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Infection"에서 감염의 원인과

특성에 대한 의학적 사고의 변화를 "The Scientific Approach to Disease: Specific Entity and Individual Sickness"에서는 질병이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가의 여부 즉, 질병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Lester King의 "The Growth of Medical Thought"는 히포크라테스 이래 19세기 병리학에 이르기까지 의학사상의 변화와 발전을 사회적 맥락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 저작이다.

이와 더불어 서지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의학문헌의 내용과 물리적 형태를 조사 분석 비평하고, 또 당시 그러한 의학문헌이 만들어지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도 의학사 연구 범주의 하나에 속한다. 또한 최근에는 역사편찬에 대한 역사인 historiography에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사적 접근방법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 셋팅 속에서의 건강과 질병의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즉, 의료 전반을 당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사회사적 연구 경향의 출현으로 이전에 위대한 인물과 사상에 치중하던 의학사 연구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사가들의 주요 관심분야의 하나로 의료 전문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의 역할,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구조와 의학사상의 관계, 환자와 의사의 관계 변화,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형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Ivan Waddington의 "General Practitioners and Consultants in Early Nineteenth Century England"와 Charles E. Rosenberg의 "Inward Vision & Outward Glance : The Shaping of the American Hospital, 1880-1914)"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신병과 그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 정신병원의 환경을 통하여 당시 사회에서 정신적인 질병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연구와 공중보건시스템이 어떠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주요한 연구범주의 하나이다.

질병사에 대한 연구도 빼놓을 수 없는 의학사의 한 분야로서 초기에 의학적 시각으로 질병의 역사를 서술하던 것에서 1960년대 들어서는 사회과학, 인구학, 인류학적 접근법을 도입하면서 질병이 발생되고 전파되는 과정과 그것이 극복되는 사회적 조건 등을 통하여 질병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게 된다. 질병관, 질병발생요인, 역사적 사건과 질병의 관계, 각 시대와 지역에서 질병의 사회적 함의, 질병의 전파, 인구증가와 질병, 환경과 질병, 직업병, 빈곤과 질병 등이 질병사의 중요한 연구과제들이다.

한편 여성과 관련된 질병과 의료직 내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전에 주로 의사의 관점에서 의학사를 보던 것이 이제는 환자의 시각에서도 보게 되었다. 또한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성과 자격,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의학교와 사회와의 관계, 가르치고 배우며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윤리적 조건, 교육비 등을 통하여 의학교육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며, 의사의 행태와 의료윤리 문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IV. 결론

기존의 분류표에는 의학사가 매우 간단하게 취급되고 있어 이들 문헌을 분류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에 의학사문헌의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하여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아제 거의 1세기에 걸쳐 전문 의학사가들이 중심이 되어 발전해 온 의학사는 초창기 이래 연구의 영역

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그로써 다양한 주제를 가진 연구결과물들이 배출되었다. 단순히 의학 역사상 가치가 있는 사료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의학사 연구영역에 포함되는 문헌들이 한 곳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류표상에서 의학사 항목이 보다 상세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분류표상의 세부전개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 Brieger, Gert H. "The Historiography of Medicine".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 Routledge, 1993. pp.24-44.
- Brieger, Gert H. "History of Medicine". In A Guide to the Culture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ed by Paul T Durbin. New York: Free Press, 1994. pp.121-194.
- 황상의. "의학사 연구의 동향". 역사와 사회 속의 의학. 명경, 1995. pp.99-112
- 신광선. "의학분야의 분류전개 빈천에 관한 연구 -특히 KDC, DDC, NLMC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